

勞 動 經 濟 論 集
第39卷 第3號, 2016. 9. pp.1~32
© 韓 國 勞 動 經 濟 學 會

청년층의 취업준비 수준이 패널 분석*

김 혜 진** · 오 호 영***

본 논문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작성한 「한국교육고용패널」 7~11차년도 원자료를 개인별 패널 자료로 재구성하여 청년층의 취업준비 수준이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청년층의 취업준비 수준을 노동경제학에서 전통적으로 다루어왔던 유보임금(reservation wage)과 취업준비 수준에 관한 15개 주관적 평가 문항에 요인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추출된 근무편의성 요인, 선망직장 요인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평균 유보임금은 남성의 경우가 여성의 경우보다 높았지만 취업준비 수준이 15개 항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의 경우보다 높았으며, 특히 여성은 근무편의성 요인을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재 상태별로 취업준비 수준을 비교했을 때 동년배(cohort) 자료를 이용한 분석임에도 취업준비 수준이 미취업 중인 때보다 재학 중인 경우에 유보임금이 높고 선망직장에 대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취업준비 수준, 유보임금, 요인분석

논문 접수일: 2016년 4월 14일, 논문 수정일: 2016년 7월 18일, 논문 게재확정일: 2016년 9월 20일

* 본 논문은 2016년 제11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논문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준 익명의 논평자들에게 감사드리며,
남아 있는 논문의 한계는 전적으로 저자들의 몫임을 밝힌다.

** (제1저자)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hyjnk@snu.ac.kr)

*** (제2저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mrpresi@naver.com)

I.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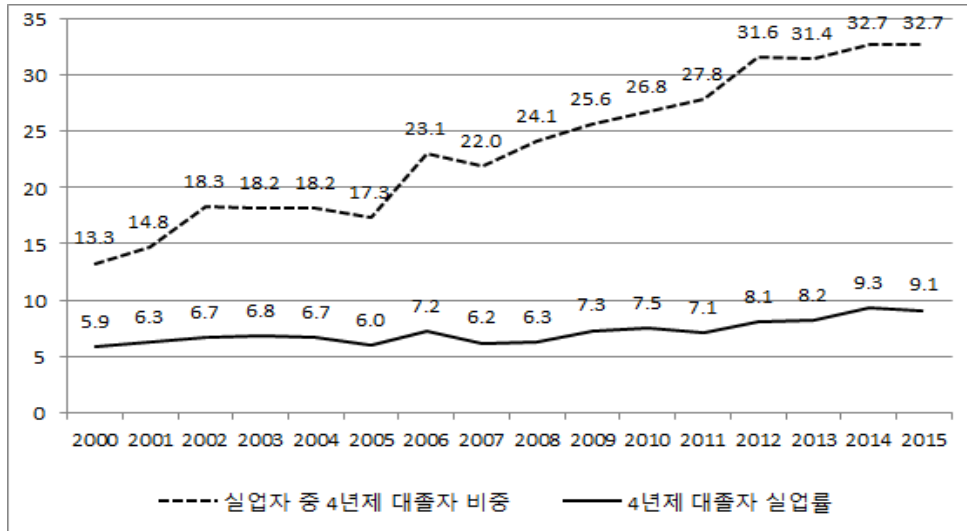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두한 청년층의 취업난이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지나면서 더욱 악화됨에 따라 2015년 기준 청년층 실업률은 9.2%에 달하였다. 고용률 70%로 대표되는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 추진에 힘입어 2015년 기준 15~64세 고용률은 65.7%를 넘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청년층 고용률은 여전히 40%를 약간 넘는 수준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진학률로 상징되는 고학력화로 인하여 청년층 취업난은 일반 교육을 받은 4년제 대졸자들에게 점차 집중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을 기준으로 전체 청년층(15~29세) 실업자 수 39.7만 명 중 4년제 대졸자는 13만 명으로 32.7%를 차지하는데, 이는 2000년의 13.3%와 비교하면 20%p 넘게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전체 청년층 중 4년제 대졸자의 실업률이 2000년 5.9%에서 2015년 9.1%로 3%p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고졸 이하 학력자, 전문대졸자의 실업률 변화폭이 1.7% 미만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악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구직자들은 공기업, 대기업 등 임금이 높고 안정적인 일자리에 몰리고 있지만 수요 측면에서 보면 대기업들의 신규 채용이 갈수록 감소하는 등 청년층 취업여건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청년층의 선호도가 낮은 중소기업과 3D 업종에서는 인력난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노동시장의 미스매치(mismatch)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 해소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고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며,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고용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피라미드형의 산업계 숙련 수요와 역피라미드형의 학력 구조라는 근본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대학 진학과 그에 따라 높아진 청년층의 취업 눈높이와 같은 노동공급 측에 초점을 맞춘 정책 대응도 필요하다. 청년층에게 취업 눈높이를 낮추라고 강요하기보다는 고학력화에 따라 취업 눈높이가 높아지는 현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취업 눈높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현실에 맞는 정책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림 1] 실업자 중 4년제 대졸자 비중과 4년제 대졸자 실업률(청년층(15~29세) 기준)

(단위:%)



자료 : 통계청 KOSIS에서 작성.

노동경제학에서는 전통적으로 취업 준비를 유보임금(reservation wage) 측면에서만 다루어 왔지만 실제로 구직자들은 임금 외에도 다양한 근로조건을 고려한다. 예를 들어, 9급 공무원의 임금수준은 대기업 근로자보다 낮지만 높은 고용안정성 때문에 공무원 시험에 지원하는 구직자들이 많다. 또한, 청년층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것은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뿐만 아니라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고용안정성이 낮다는 인식 때문이기도 하다. 청년층의 취업 준비를 고려치 못한 일자리를 아무리 공급하더라도 취업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그간의 정책의 한계라는 점을 고려하여, 청년층의 취업 준비에 맞는 일자리 창출, 고용서비스 제공 등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유보임금을 포함한, 일자리에 대한 청년층의 다양한 기대를 취업 준비율로 정의하고 이러한 취업 준비율의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있다. 취업 준비율에 대한 선행연구와 달리 자료를 패널화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일한 코호트의 취업 준비율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동태적으로 분석한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하에서는 취업 준비율 관련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 분석 자료와 기술 통계 분석 결과, 계량분석 실증 결과 등을 제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노동경제학에서는 개인의 취업 의사결정과 근로시간은 주어진 노동수요 조건 하에서 노동공급자들의 선호 체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즉, 기업으로부터 동일한 수준의 임금 및 근로조건이 수반되는 취업 제의를 받더라도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가와 노동에 대한 한계대체율이 다르기 때문에 취업 여부, 근로시간이 상이하게 결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취업 눈높이는 개인의 선호와 관련이 있으며, 취업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되는 속성들의 최솟값으로 정의할 수 있다(오호영 외, 2012). 대표적인 취업 눈높이의 지표인 유보임금은 구직자가 고용주의 취업 제의를 수용할 수 있는 최저의 보상 수준이며, 개인의 유보임금보다 기업이 제시하는 임금 수준이 높을 경우에만 일자리 제의를 수락하는 것이 구직자의 최적 전략이다 (Mortensen, 1986).

유보임금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실업수당(unemployment benefit) 금액이 높을수록 유보임금이 높아지는데, 이는 실업수당이 많으면 취업 시의 효용과 비취업 시의 효용 간의 격차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한, 인적자본의 수준이 높을수록 유보임금은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고학력자일 경우 더 좋은 조건의 임금 제안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취업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취업 후에는 OJT(On-the-Job-Training)를 통한 인적자본 축적이 용이하고, 이직과 전직을 통해 좀 더 생산성이 높은 직무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보임금이 상승하게 된다(Carrillo-Tudela, 2009).

유보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그 중 실업수당 등 사회보장제도의 영향은 불분명하다. 예를 들어 Prasad(2003)에서는 실업수당의 유무가 유보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Hogan(2004)에서는 실업수당이 유보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개인의 속성에 관해서 Prasad(2003)은 교육수준 등의 관측 가능한 인적자본과 유보임금이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였고, 남자가 여자보다 유보임금이 더 높았다. Jones(1989)는 개인적 속성뿐만 아니라 이전 직장에서의 임금수준이 유보임금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Hogan(2004) 또한 이전 임금이 유보임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남성의 경우 이전 임금의 영향이 더욱 크다는 특징을 밝혔다.

국내의 유보임금 관련 연구는 어수봉(1994), 류재술·류기철(2002), 이성림(2004), 이병희 외(2009) 등이 있다. 우선, 어수봉(1994)에서는 이전 직장의 임금, 성, 연령은 탐색이론과 부합하는 결과가 나타났지만 가구원 수, 혼인상태, 교육연수, 실업기간 등은 유보임금과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덧붙여, 일정 연령까지는 유보임금이 높아지지만 이후에는 감소하여 연령-임금 프로파일과 비슷한 양상이 나타남을 밝혔다.

류재술·류기철(2002)은 남자의 경우 이전 직장 임금, 연령, 학력, 실업기간이 유보임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였다. 반면, 여성은 이전 직장 임금, 연령, 학력뿐만 아니라 자격증 유무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남성보다 연령효과가 더 크다는 점을 밝혔다.

이성림(2004)은 미취업 여성들의 유보임금과 시장임금 비교를 통해 미취업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다항로짓 분석을 통해 여성의 미취업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정한 결과, 여성의 인적자본 수준, 자녀 양육 및 가사 부담, 가계경제 상태, 이전 직장 경험이 주요한 설명변수로 나타났다.

이병희 외(2009)는 1998년 이후 시계열적으로 유보임금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요인으로 청년층의 고학력화, 분가 비중의 감소에 따른 부모에의 의존성 증가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유보임금 결정요인과 관련하여 여성보다 남성이, 나이가 많을수록, 전문대보다 4년제 대학이, 서울권 소재 대학일수록 유보임금이 높다는 점을 밝혔다.

오호영 외(2012)는 연구진이 작성한 취업 준비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보임금 이외의 청년층 취업 준비를 다양한 각도에서 결과를 제시하였으나, 특정 시점의 대학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취업 준비가 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전체 청년층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처럼 유보임금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임금 이외의 일자리 특성에 대한 구직자의 기대를 분석한 실증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경력직 노동시장의 활성화되지 않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큰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는 청년기의 취업 선택은 생애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년층이 입직 시 자신의 선호와 부합하는 일자리 특성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일자리 특성에 대한 청년층의 기대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청년고용대책 수립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있으며, 학술적으로도 유보임금 이외에 청년층의 취업 준비에 관한 요인별·계층별 심층 분석이 상대적으로 미진하였고, 취업 준비의 시계열적 변화를 다룬 연구가 없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가 있다.

Ⅲ. 자료 및 기초분석

1. 분석자료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2004년도부터 전국 중학교 3학년,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전문계 고등학교 3학년 각각 2,000명과 학교 행정가 및 교사 그리고 가구 등을 종단적으로 조사한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이하 KEEP) 조사 원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4년 당시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취업 선호도에 대한 문항이 처음으로 포함된 7차년도 자료(2010년 조사)부터 학술대회용으로 배포된 11차년도 자료(2014년 조사)까지 5개년 자료를 패널화하여 사용하였다. 2004년 당시 고3이었던 표본은 2014년을 기준으로 평균 연령이 27.8세이기 때문에 청년층 노동시장 연구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분석 기간 중 취업 눈높이 문항에 모두 응답한 1,735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취업 눈높이 조사 문항은 유보임금을 제외하고 총 1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질문에 대해 ‘예’,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 나는 수도권에 있는 직장이 아니면 취업하고 싶지 않다’, ‘(2) 나는 서울 강남에 있는 직장이 아니면 취업하고 싶지 않다’, ‘(3) 나는 도시에 있는 직장이 아니면 취업하고 싶지 않다’, ‘(4) 나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회사가 아니면 취업하고 싶지 않다’, ‘(5) 나는 중소기업에는 취업하고 싶지 않다’, ‘(6) 나는 대기업, 외국계 기업이 아니면 취업하고 싶지 않다’, ‘(7) 나는 공기업, 공무원이 아니면 취업하고 싶지 않다’, ‘(8) 나는 나의 학벌이나 학력 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일은 하고 싶지 않다’, ‘(9) 나는 육체적으로 힘든 일은 하고 싶지 않다’, ‘(10) 나의 전공 분야와 일치하지 않는 일은 하고 싶지 않다’, ‘(11) 나는 정규직이 아니면 취업하고 싶지 않다’, ‘(12) 나는 사무직이 아니면 취업하고 싶지 않다’, ‘(13) 나는 주 5일 근무가 아니면 취업하고 싶지 않다’, ‘(14) 나는 통근이 수월하지 않은 회사에는 취업하고 싶지 않다’, ‘(15) 나는 근무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는 회사에는 취업하고 싶지 않다’ 등이다.

2. 기초분석

가. 주요변수

취업 준비가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은 크게 개인 속성, 가구 배경, 인적자본, 진로 활동, 취업 상황 등으로 나눌 수 있다(표 1 참조).

먼저, 관찰 가능한 개인의 속성은 현재 상태, 성, 연령, 혼인 상태 등이다. 현재 상태는 재학 중, 취업 중, 미취업 중으로 구분하였으며, 미취업 중은 졸업 후에도 취업하지 않은 상태를 뜻한다. 현재 상태는 11차년도 기준으로 재학 중 159명(전체 9.16%), 취업 중 1,238명(71.35%), 미취업 중 338명(19.48%)으로 취업 중이 가장 많다. 전체 표본 중 남성은 54%였고, 표본의 평균 연령이 27.8세이다.

가구배경 변수는 가구소득과 부친의 교육연수이며, 이를 통하여 가구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취업 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한다. 가구의 사회경제적 계층이 자녀의 취업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부모의 계층이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자녀의 취업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와 가정 내 분위기나 문화를 통해 부모의 계층이 자녀의 취업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이다. 03 당시 가구소득의 평균은 267.49만 원이고 부친의 교육연수는 평균 15.91년이다.

인적자본 관련 변수는 고교 유형, 03 당시 사교육 경험, 현재 본인 학력 등이다. 앞서 소개한 선행연구에서 인적자본은 유보임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사교육 경험은 사교육비가 높을수록 교육투자를 회수하고자 하는 심리가 작용할 수 있으므로 취업 준비를 높일 것으로 예상하고 변수에 포함하였다. 전체 표본 중 일반계고 출신이 54%, 전문계고 출신이 46%이고, 03 당시 사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는 68%이다. 현재 학력은 11차년도 기준으로 고졸 368명(전체 21.25%), 전문대 재학 25명(전체 1.44%), 전문대 졸업 523명(전체 30.20%), 4년제 대학 재학 76명(전체 4.39%), 4년제 대학 졸업 740명(전체 42.73%)이다.

진로 관련 변수는 현재 장래희망 직업의 유무인데, 장래희망이 있으면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일자리 특성 및 임금 등에 관해서 더욱 정확한 견해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이 변수를 포함하였다. 11차 조사 당시 장래희망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31%였다.

마지막으로 취업 관련 변수는 종사상지위, 기업체 규모, 근무시간, 월평균임금, 시간당 임금 등이다. 종사상지위의 경우 상용직일 경우 현재 근로환경이 임시·일용직보다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에 그로 인해 취업 눈높이가 높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대기업의 복리 수준이나 고용안정성이 중소기업보다 우월할 것임을 감안하여 기업체 규모를 포함하였고, 이를 통해 기업체 규모의 차이에 따른 취업 눈높이 변화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 표본 중 상용직이 90%였고 대기업 근로자는 33%이며, 평균 일주일 총 근무시간은 46.94시간, 월평균임금은 187.37만 원이다.

〈표 1〉 주요 변수(11차년도(2014) 기준)

	변수명	관찰 수	평균	표준편차	설명
개인 속성	현재 상태	1735	-	-	1=재학중 2=취업중 3=미취업중
	성	1735	0.54	0.50	1=남성 0=여성
	연령	1735	27.80	0.44	
	혼인 상태	1735	0.20	0.40	1=배우자 있음 0= 배우자 없음
가구 배경	가구소득(만 원)	1680	267.49	175.47	
	부친의 교육연수	1498	15.91	2.60	
인적 자본	고교 유형	1735	0.54	0.50	1=일반계고 0=전문계고
	고3 당시 사교육 경험	1699	0.68	0.47	1=있음 0=없음
	현재 본인 학력	1732	-	-	1=고졸 2=전문대재 3=전문대졸 4=4년제대재학 5=4년제대졸
진로	현재 장래희망 직업	1732	0.31	0.46	1=있음 0=없음
취업	종사상지위	1222	0.90	0.30	1=상용, 0=임시, 일용
	기업체 규모	1206	0.33	0.47	1=대기업(300명 이상), 0=중소기업(300명 미만)
	근무시간	1210	46.94	10.93	일주일 총 근무 시간
	월평균임금(만원)	1139	187.37	62.55	초과, 특별 모두 포함
	시간당 임금(원)	1135	11098.72	4936.18	
	로그시간당 임금	1135	9.24	0.37	

주: 현재 상태, 현재 본인 학력 등은 범주형 변수로 해당 변수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는 본문에 포함하였음.

나. 요인분석을 통한 취업 준비태도 종합지수 구축

분석에 사용하고 있는 취업 준비태도 문항은 (유보임금 제외) 총 15개인데 이들 전체가 모두 취업 준비태도의 상이한 측면을 측정하고 있다는 사전적·이론적 근거는 없다. 만약 취업 준비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의 잠재적 요인(latent factor)이 존재하고, 취업 준비태도 측정 문항을 통해 이러한 잠재적 요인이 드러난다고 가정하면 Spearman의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적용할 수 있다. 요인분석은 관측된 변수 간에 일정한 관계와 패턴이 존재할 때, 이로부터 보이지 않는 체계적인 연결 구조를 파악하여 공통의 잠재요인을 추출하는 데 적합한 통계 기법이다. 요인분석은 확인적(confirmatory) 요인분석과 탐색적(exploratory) 요인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취업 준비태도를 측정하는 15개 항목 간의 구조에 대한 사전적 정보가 없으므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사용한다.

<표 2>에는 분석 기간 전체 데이터를 이용하여 최초 요인분석에서 나타난 요인들의 고유치(eigenvalue)와 설명 비율이 제시되어 있다. 요인분석에서 요인적재값(factor loading)은 변수와 요인 간의 상관계수인데 고유치는 요인별로 모든 변수의 요인적재값을 제곱하여 더한 값으로 요인이 설명할 수 있는 변수들의 분산 총합이다. 즉 고유치는 그 요인이 설명하는 분산의 양이므로, 이 값이 클수록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된다. 통상적으로는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을 선택하는데 <표 2>를 보면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은 Factor1과 Factor2이다.

<표 2> 최초 요인분석 결과

요인	고유치	설명 비율	누적 비율
Factor1	3.2490	0.7466	0.7466
Factor2	1.1503	0.2643	1.0109
Factor3	0.5250	0.1206	1.1316
Factor4	0.4225	0.0971	1.2286
Factor5	0.1881	0.0432	1.2719
Factor6	0.0771	0.0177	1.2896
Factor7	0.0198	0.0046	1.2942
Factor8	-0.0571	-0.0131	1.2810
Factor9	-0.0980	-0.0225	1.2585
Factor10	-0.1072	-0.0246	1.2339

<표 3>에는 고유치가 1 이상인 2개의 요인에 대해 직교 특성(orthogonality)을 극대화 하는 요인 회전(factor rotation)을 한 후의 요인적재값이 나타나 있다. 공통요인에 의해서 얻은 최초 요인행렬은 측정변수들의 분산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는 있지만 변수들과 요인들 간의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이때 요인의 축을 직교 회전하면 각 요인에 대하여 몇 개 항목은 상대적으로 높은 요인적재값을 가지고 나머지 항목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요인적재값을 갖는 단순한 구조로 바뀌어 해석이 용이하게 된다. <표 3>을 보면 Factor1은 통근 가능권, 근무시간, 주5일 근무, 육체적 힘든 일, 정규직, 학벌/학력수준 적합도 등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학력 수준 적합도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는 유리한 근무환경과 관련성이 높으므로 Factor1은 ‘근무편의성 요인’으로 간주한다. 다음으로, Factor2는 중소기업, 대기업/외국계 기업, 사회적 인정, 공기업/공무원 등과 상관관계가 높는데 이러한 문항은 일반적으로 인식이 좋은 선망직장과 관련이 높으므로 ‘선망직장 요인’으로 간주한다. 또한, 요인별로 변수의 실제 관측치와 요인점수 계수(factor scoring coefficient)를 사용하여 표준화된 요인점수(factor scoring)를 구할 수 있어 근무편의성 요인과 선망직장 요인에 대한 요인점수를 주요 변수로 사용하였다.

<표 3> 주요 요인과 요인적재값 추정 결과

	Factor1-근무편의성 요인		Factor2-선망직장 요인
통근 가능권	0.6798	중소기업	0.6665
근무시간	0.6512	대기업/외국계 기업	0.6589
주5일 근무	0.6176	사회적 인정	0.5120
육체적 힘든 일	0.4704	공기업/공무원	0.4195
정규직	0.4497	서울강남권 직장	0.3654
학벌/학력수준 적합도	0.4196	학벌/학력수준 적합도	0.3519
사무직	0.4117	도시권 직장	0.3141
도시권 직장	0.3974	전공분야 일치도	0.2958
수도권 직장	0.3013	수도권 직장	0.2600
사회적 인정	0.2839	정규직	0.2389
전공 분야 일치도	0.1979	사무직	0.2344
서울강남권 직장	0.0689	육체적 힘든 일	0.1816
공기업/공무원	0.0620	주5일 근무	0.0895
중소기업	0.0575	통근 가능권	0.0350
대기업/외국계 기업	0.0238	근무시간	-0.0028

다. 취업 준비이 특성

우선 <표 4>를 통해 2014년 기준 취업 준비이 지표의 특성을 살펴보면, 취업 준비이의 대표적인 지표인 유보임금은 212.65만 원으로 월평균임금인 187.37만 원보다 높았다. 유보임금 외의 15개 지표 중에서는 근무시간 준수 71.01%, 통근 가능권 66.97%, 정규직 63.98%, 주5일 근무 60.81%, 육체적 힘든 일 42.54%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또한,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중소기업 기피’는 14.06%에 불과했고, 대기업 및 외국계 기업 선호도 8.99%에 불과해 청년층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원인이 임금, 근무시간 준수, 통근 용이성, 주5일제 등이 취약하기 때문일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공기업,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도 8.7%로 예상보다 낮아 공기업 자체보다는 공기업에 취직할 경우 얻는 고용안정성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서울 강남권 직장 선호는 3.57%로 매우 낮아 구직 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근무편의성 요인과 선망직장 요인의 요인점수는 표준화 값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값에 대한 직관적인 설명은 불가능하므로 생략한다.

다음으로, 취업 준비이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유보임금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상승했지만 2014년도에 약간 하락하였다. 2010년에 비해서 2014년에 선호도가 높아진 항목은 주5일 근무(19.37%p), 통근 가능권(9.91%p), 근무시간(9.63%p), 사무직(7.55%p) 등으로 근무 편의성과 관련된 항목에 대한 선호도가 특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반면, 2010년에 비해 선호도가 낮아진 항목은 수도권 직장(3.57%p), 도시권 직장(1.67%p) 등이다. 이러한 변화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추세 변화를 반영하는 시간효과(time effect)인지 아니면 개인의 연령 혹은 노동시장 경험이 축적되면서 나타나는 연령효과(aging effect)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석 시 주의를 요한다. 요인점수의 경우, 근무편의성 요인은 2010년에 비해 2014년에 증가한 반면 선망직장 요인은 소폭 하락하였다.

다음으로 취업 준비이를 측정하기 위한 15개 문항을 남녀로 구분하여 응답 현황을 집계한 결과가 <표 5>와 <표 6>에 나타나 있다. 유보임금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2010년에 14.5%였던 남녀 간 유보임금 격차가 2014년에는 31.7%(금액으로는 57.65만 원)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보면, 유보임금은 남성과 여성 모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상승하다가 2014년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취업 준비이가 상승한 항목은 주5일 근무, 근무시간, 통근 가능권이고, 하락한 항목은 도시권 직장, 수도권 직장 등으로 남

〈표 4〉 취업 눈높이의 연도별 변화

(단위: %, 단, 유보임금, 근무편의성 요인, 전망직장요인 제외)

	2010	2011	2012	2013	2014	2014-2010
유보임금(만원)	178.59	196.16	203.75	221.12	212.65	34.06
근무시간	61.38	64.90	65.82	66.46	71.01	9.63
통근 가능권	57.06	62.31	63.52	63.80	66.97	9.91
정규직	60.52	63.92	63.46	62.07	63.98	3.46
주5일 근무	41.44	48.53	53.72	54.87	60.81	19.37
육체적 힘든 일	38.39	39.77	39.60	40.00	42.54	4.15
학벌/학력수준 적합도	39.19	42.36	39.37	38.62	39.25	0.06
도시권 직장	35.79	35.85	36.14	32.51	34.12	-1.67
사무직	23.11	25.88	25.53	25.82	30.66	7.55
전공분야 일치도	30.49	30.55	28.47	27.26	29.74	-0.75
사회적 인정	27.78	28.65	27.90	27.26	27.03	-0.75
수도권 직장	29.86	29.63	29.22	26.63	26.28	-3.57
중소기업	11.87	13.37	12.45	13.95	14.06	2.19
대기업/외국계 기업	7.15	7.26	7.32	8.07	8.99	1.84
공기업/공무원	6.92	6.92	7.38	8.07	8.70	1.79
서울강남권 직장	3.75	3.34	3.63	3.11	3.57	-0.17
근무편의성 요인	-0.1095	-0.0076	0.0163	0.0042	0.0966	0.2061
전망직장 요인	0.0091	0.0133	-0.0128	-0.0105	0.0008	-0.0084
관찰 수	1,735	1,735	1,735	1,735	1,735	

녀를 분리했을 때도 전체 표본과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 다만, 사회적 인정의 경우 여성은 5%p 하락한 것과 달리 남성은 2.57%p 상승하여 상반된 경향을 보였다. 요인점수의 경우, 남성은 근무편의성 요인과 전망직장요인 모두 2010년에 비해 2014년에 높았으나, 여성은 근무편의성 요인은 2014년에 더 높아졌지만 전망직장요인은 낮아졌다.

이미 언급했듯이 평균 유보임금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지만 취업 눈높이 15개 항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취업 눈높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를 통해 남녀 선호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육체적 힘든 일, 주5일 근무, 근무시간, 통근 가능권 등 근무조건에 관한 항목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취업 눈높이가 더 높은 특징을 보였다. 반면, 중소기업, 대기업/외국계 기업, 공기업/공무원, 정규직 등은 여성에 비해

<표 5> 성별 취업 준비의 연도별 변화(남자)

(단위: %, 단, 유보임금, 근무편의성 요인, 전망직장요인 제외)

	2010	2011	2012	2013	2014	2014-2010
유보임금(만원)	189.67	217.60	222.11	242.03	239.27	49.60
정규직	57.17	61.46	59.85	62.10	65.20	8.03
근무시간	52.25	54.71	55.89	56.10	63.17	10.92
통근가능권	48.50	52.14	52.36	52.14	57.92	9.42
주5일 근무	31.91	36.19	43.25	44.75	51.18	19.27
학벌/학력수준 적합도	31.26	34.69	30.62	32.12	33.40	2.14
육체적 힘든 일	28.16	28.69	26.87	28.91	31.91	3.75
전공분야 일치도	29.66	31.05	26.66	26.34	29.44	-0.21
도시권직장	30.41	29.23	28.80	26.12	28.37	-2.03
사회적인정	23.77	25.16	23.34	23.23	26.34	2.57
사무직	17.24	18.63	19.38	19.49	24.09	6.85
수도권직장	23.34	22.16	23.55	21.52	20.88	-2.46
중소기업	13.06	13.17	13.17	16.06	17.13	4.07
대기업/외국계 기업	8.24	8.35	8.35	10.17	12.10	3.85
공기업/공무원	7.71	6.96	7.60	9.10	10.17	2.46
서울강남권직장	3.64	3.00	3.10	3.21	3.53	-0.11
근무편의성요인	-0.3484	-0.2750	-0.2573	-0.2598	-0.1341	0.2143
전망직장요인	0.0160	0.0103	-0.0180	0.0326	0.0715	0.0554
관찰 수	934	934	934	934	934	

남성이 더욱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표 7>~<표 9>를 통해 현재 상태별 취업 준비이 특성을 살펴본다. 먼저, 2014년을 기준으로 유보임금은 재학 중인 경우에 취업 중인 경우보다 높았는데, 이는 노동시장에 진입한 후 취업 준비이 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취업 중일 경우 유보임금은 재학 중, 취업 중보다 훨씬 낮는데 이는 취업난을 겪으

〈표 6〉 성별 취업 눈높이의 연도별 변화(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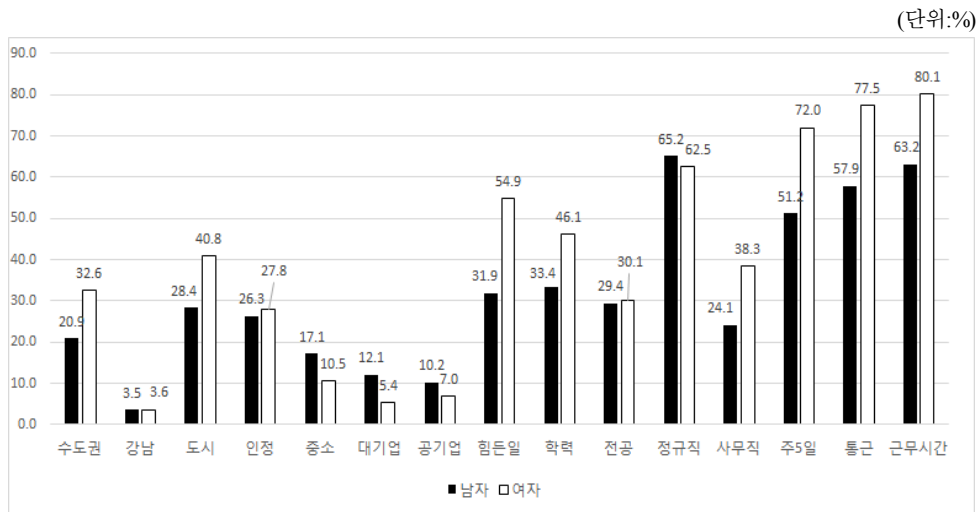
(단위: %, 단, 유보임금, 근무편의성 요인, 선망직장요인 제외)

	2010	2011	2012	2013	2014	2014-2010
유보임금(만원)	165.67	171.17	182.35	196.73	181.62	15.95
근무시간	72.03	76.78	77.40	78.53	80.15	8.11
통근가능권	67.04	74.16	76.53	77.40	77.53	10.49
주5일 근무	52.56	62.92	65.92	66.67	72.03	19.48
정규직	64.42	66.79	67.67	62.05	62.55	-1.87
육체적 힘든 일	50.31	52.68	54.43	52.93	54.93	4.62
학벌/학력수준 적합도	48.44	51.31	49.56	46.19	46.07	-2.37
도시권직장	42.07	43.57	44.69	39.95	40.82	-1.25
사무직	29.96	34.33	32.71	33.21	38.33	8.36
수도권직장	37.45	38.33	35.83	32.58	32.58	-4.87
전공분야 일치도	31.46	29.96	30.59	28.34	30.09	-1.37
사회적인정	32.46	32.71	33.21	31.96	27.84	-4.62
중소기업	10.49	13.61	11.61	11.49	10.49	0.00
공기업/공무원	5.99	6.87	7.12	6.87	6.99	1.00
대기업/외국계 기업	5.87	5.99	6.12	5.62	5.37	-0.50
서울강남권직장	3.87	3.75	4.24	3.00	3.62	-0.25
근무편의성요인	0.1690	0.3042	0.3354	0.3121	0.3655	0.1965
선망직장요인	0.0011	0.0168	-0.0067	-0.0606	-0.0816	-0.0827
관찰 수	801	801	801	801	801	

면서 취업 눈높이를 하향 조정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전반적으로 취업 눈높이 15개 항목 중 근무시간, 통근 가능권, 정규직, 주 5일 근무 등을 중시했고, 재학 중은 정규직, 취업 중 및 미취업 중은 근무시간을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유보임금은 2010년에 비해 2014년에 재학 중(+78.47만 원)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다음으로 취업 중(+42.18만 원), 미취업 중(+17.35만 원) 순으로 상승하였다. 15개 항목 중에서는 전반적으로 근무시간의 선호도가 가장 많이 상승하였고, 선호도가 가장 많이 하락한 항목은 취업 중인 경우에는 수도권 직장(5.24%p), 미취업 중인 경우에는 도시권 직장(4.28%p)이어서 근무 지역에 대한 눈높이

[그림 2] 성별 취업 준비 차이 (11차(2014)년도 기준)



<표 7> 현재 상태별 취업 준비의 연도별 변화(재학 중)

(단위: %, 단, 유보임금, 근무편의성 요인, 선망직장요인 제외)

	2010	2011	2012	2013	2014	2014-2010
유보임금(만원)	189.02	237.74	236.30	295.23	267.48	78.47
정규직	63.73	68.14	65.78	60.99	66.04	2.31
통근기능권	52.64	61.69	56.63	53.81	64.78	12.14
근무시간	56.17	57.63	55.90	52.02	64.15	7.98
주5일 근무	38.54	43.05	47.95	46.64	58.49	19.95
학벌/학력수준 적합도	43.95	48.31	49.64	48.88	49.06	5.10
육체적 힘든 일	36.65	38.47	36.87	39.91	44.65	8.00
전공분야 일치도	35.14	40.34	36.63	36.77	39.62	4.48
도시권직장	36.27	36.10	33.73	36.77	36.48	0.21
사무직	22.80	24.58	26.02	30.49	35.85	13.05
수도권직장	28.59	27.46	28.92	28.25	33.96	5.37
사회적인정	29.09	33.90	32.53	36.77	28.30	-0.79
중소기업	14.48	16.95	19.28	23.77	22.01	7.53
대기업/외국계 기업	9.57	11.19	12.05	11.66	12.58	3.01
공기업/공무원	8.44	9.66	9.64	15.25	12.58	4.14
서울강남권직장	3.65	3.90	2.17	4.04	5.03	1.38
근무편의성요인	-0.1747	-0.0743	-0.1075	-0.1511	0.0708	0.2455
선망직장요인	0.1133	0.1786	0.1946	0.3074	0.2298	0.1165
관찰 수	794	590	415	223	159	

조정을 가지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 요인점수는 세 집단 모두에서 근무편의성 요인과 전망직장 요인이 모두 상승하는 특징을 보였다.

〈표 8〉 현재 상태별 취업 눈높이의 연도별 변화(취업 중)

(단위: %, 단, 유보임금, 근무편의성 요인, 전망직장요인 제외)

	2010	2011	2012	2013	2014	2014-2010
유보임금(만원)	173.42	175.86	201.47	218.52	215.60	42.18
근무시간	67.00	69.03	68.47	68.33	71.16	4.17
정규직	60.23	62.73	64.02	63.76	66.24	6.01
통근 가능권	60.23	62.73	65.25	64.35	66.16	5.93
주5일 근무	42.88	51.01	54.55	54.78	59.45	16.57
육체적 힘든 일	39.92	39.30	40.25	38.70	41.68	1.76
학벌/학력수준 적합도	35.83	39.98	37.12	37.00	38.93	3.11
도시권 직장	35.40	35.70	37.03	32.26	34.65	-0.75
전공분야 일치도	27.64	25.68	26.23	27.01	30.45	2.81
사무직	22.85	24.66	24.81	24.05	30.21	7.36
사회적 인정	27.50	26.80	27.27	26.33	27.87	0.36
수도권 직장	31.17	30.63	29.92	27.43	25.93	-5.24
중소기업	10.30	12.27	10.70	12.53	13.73	3.44
대기업/외국계 기업	5.92	4.84	6.82	7.87	9.37	3.45
공기업/공무원	4.09	4.39	5.97	6.01	7.67	3.58
서울강남권 직장	4.23	2.48	4.36	3.13	3.72	-0.52
근무편의성 요인	-0.0511	0.0259	0.0475	0.0149	0.0900	0.1411
전망직장 요인	-0.0614	-0.0763	-0.0551	-0.0482	0.0054	0.0668
관찰 수	709	888	1,056	1,181	1,238	

〈표 9〉 현재 상태별 취업 준비의 연도별 변화(미취업 중)

(단위: %, 단, 유보임금, 근무편의성 요인, 전망직장요인 제외)

	2010	2011	2012	2013	2014	2014-2010
유보임금(만원)	158.73	170.89	161.72	180.47	176.08	17.35
근무시간	62.07	67.32	70.83	69.49	73.67	11.60
통근가능권	62.50	62.26	67.42	68.58	71.01	8.51
주5일 근무	46.98	52.53	59.47	60.73	66.86	19.88
정규직	50.43	58.37	57.58	56.80	54.73	4.30
육체적 힘든 일	39.66	44.36	41.29	44.71	44.67	5.02
학벌/학력수준 적합도	33.19	36.96	32.20	37.46	35.80	2.61
도시권직장	35.34	35.80	36.36	30.51	31.07	-4.28
사무직	25.00	33.07	27.65	29.00	29.88	4.88
수도권직장	30.17	31.13	26.89	22.66	23.96	-6.21
사회적인정	24.14	22.96	23.11	24.17	23.37	-0.77
전공분야 일치도	23.28	24.90	24.62	21.75	22.49	-0.79
중소기업	7.76	8.95	8.71	12.39	11.54	3.78
공기업/공무원	10.34	9.34	9.47	10.57	10.65	0.31
대기업/외국계 기업	2.59	6.61	1.89	6.34	5.92	3.33
서울강남권직장	2.59	5.06	3.03	2.42	2.37	-0.22
근무편의성요인	-0.0651	0.0299	0.0863	0.0707	0.1326	0.1977
전망직장요인	-0.1318	-0.0564	-0.1694	-0.0899	-0.1240	0.0078
관찰 수	232	257	264	331	338	

IV. 패널 분석

본 연구에서는 취업 준비 결정요인 분석을 위하여 패널 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패널 자료는 같은 표본에 대하여 여러 기간에 걸쳐 반복 조사한 자료이기 때문에 횡단면 분석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시계열적 변화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취업자 표본은 재학 중, 미취업 중 표본과 다른 특성을 보이고 종사상

지위, 직장규모, 로그시간당 임금 등과 같은 변수가 취업자 표본에서만 관측되므로 전체 표본 분석 후 취업자 표본을 별도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다.

$$y_{i,t} = x'_{i,t}\beta + z'_i\alpha + v_i + \epsilon_{i,t}$$

위의 식에서 $y_{i,t}$ 는 로그유보임금, 근무편의성 요인, 선망직장 요인 등의 취업 눈높이 지표이고 $x_{i,t}$ 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time-varying) 개인의 관측되는 특성으로 연령, 현재 학력, 결혼, 현재 장래희망 직업 여부, (전체 표본의 경우) 현재 상태별, (취업자의 경우) 종사상지위, 기업체 규모, 로그시간당 임금이다. z_i 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time-invariant) 개인의 관측되는 특성으로 성, 고교 유형, 고3 당시 사교육 경험, 고3 당시 가구 소득, 부친 교육 연수 등이다. v_i 는 관측되지 않는 개인 고유의 이질성(unobserved individual-specific heterogeneity)이고 $\epsilon_{i,t}$ 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패널 분석 시 v_i 를 오차항으로 간주하고 pooled OLS 분석을 시행하게 되면 누락변수 편의(omitted variable bias)가 발생하게 된다. 만약, 관측되지 않는 개인 고유의 이질성이 설명변수에 충분히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해도 v_i 를 오차항에 포함하면 시계열 상관(serial correlation)이 존재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패널 분석에서는 주로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과 확률효과(random effect) 모형을 사용한다. 확률효과 모형에서는 v_i 가 관측된 설명변수와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가정하고 임의 오차(random error)로 간주한다. 이러한 가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편의(bias)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의 관측되지 않는 생산성이 교육수준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확률효과 모형을 사용하게 되면 일치추정량(consistent estimator)을 얻을 수 없다. 고정효과 모형은 이러한 확률효과 모형의 가정이 유효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방법론으로 개인특성 더미 변수(individual-specific dummy variable)를 포함하거나 demeaned transformation 등을 사용하여 일치추정량을 얻을 수 있다(민인식, 2015).

Hausman 검정 결과, 세 가지 분석(유보임금 결정요인 분석, 근무편의성 요인 결정 분석, 선망직장 요인 결정요인 분석) 중 유보임금 결정요인 분석, 선망직장 요인 결정요인 분석은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에서 추정된 계수 값이 1%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경우,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의

추정치 둘 다 일치추정량(consistent estimator)이고 확률효과 모형 추정치가 더욱 효율적(efficient)이기 때문에 확률효과 모형을 사용하는 게 적합하다. 반면 근무편의성 요인 결정 분석에서는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에서 추정된 계수 값이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가설이 기각되어 확률효과 모형의 추정치에 편의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time-invariant) 변수가 분석에서 누락되어 해당 변수에 대한 효과를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time-invariant) 개인의 관측되는 특성 변수를 분석에 포함하기 위해서 세 가지 분석 모두 확률효과 모형을 중심으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또한, 본 논문의 분석 결과를 인과관계로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취업 준비이와의 상관관계로 이해하고자 한다.

1. 전체 표본 대상 분석

먼저, 유보임금 결정요인 분석을 위하여 종속변수가 로그 유보임금인 회귀식을 추정하였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유보임금 결정 메커니즘이 상이할 것임을 감안하여 남성과 여성 표본을 분리한 유보임금 회귀식 추정 결과도 함께 제시하였다. <표 10>을 통해 개별 변수의 유의성을 살펴보면, 남성은 여성에 비해 유보임금이 18.42% 높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유보임금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력별로는 기준집단(reference group)이 고졸일 때, 전문대 재학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이 높을수록 유보임금이 상승하였다. 현재 상태의 경우, 기준집단이 재학 중일 때 취업 중과 미취업 중인 경우가 재학 중인 경우에 비해 유보임금이 낮아 기초분석과 동일한 결과가 유지되었다. 결혼 여부는 전체 표본에서는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남성 표본에서는 정(+)의 효과가 나타났다. 여성 표본에서는 확률효과 모형의 경우 유의한 효과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부(-)의 효과가 나타났다.

고교 관련 변수를 살펴보면, 일반계인 경우 전문계보다 유보임금이 높았고 고3 당시 사교육 경험은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가구배경 변수 중 고3 당시 가구소득은 크기는 작지만 유의한 정(+)의 효과를 보였고, 부친의 교육연수가 1년 증가할 때 자녀의 유보임금이 1% 상승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장래희망 여부 또한 유의한 정(+)의 효과를 가져 진로 활동이나 진로 설계 등에 관심이 높은 경우 유보임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유보임금 패널 분석 (전체 표본 대상)

	전체		남성		여성	
	고정효과 모형	확률효과 모형	고정효과 모형	확률효과 모형	고정효과 모형	확률효과 모형
성 (남성=1, 여성=0)		0.1842*** (0.0137)				
연령	0.0434*** (0.0035)	0.0402*** (0.0033)	0.0467*** (0.0053)	0.0421*** (0.0050)	0.0412*** (0.0046)	0.0395*** (0.0043)
전문대 재학	0.0101 (0.0558)	-0.0780* (0.0409)	-0.0520 (0.0728)	-0.1555** (0.0544)	0.1315 (0.0936)	0.0429 (0.0667)
전문대 졸업	0.0759* (0.0397)	0.0378** (0.0183)	0.0346 (0.0501)	-0.0012 (0.0259)	0.1351* (0.0698)	0.0711*** (0.0262)
4년제대 재학	0.0897* (0.0506)	0.0346 (0.0367)	0.0732 (0.0661)	-0.0264 (0.0500)	0.1223 (0.0862)	0.1334** (0.0566)
4년제대 졸업	0.0795** (0.0374)	0.0752*** (0.0199)	0.0859* (0.0462)	0.0600** (0.0276)	0.0665 (0.0686)	0.0817*** (0.0294)
취업 중	-0.0161 (0.0370)	-0.0551* (0.0312)	-0.0520 (0.0515)	-0.1119** (0.0434)	0.0305 (0.0536)	0.0139 (0.0452)
미취업 중	-0.0404 (0.0387)	-0.1289*** (0.0328)	-0.0641 (0.0541)	-0.1702*** (0.0458)	0.0073 (0.0557)	-0.0497 (0.0472)
결혼 (배우자 있음=1, 배우자 없음=0)	-0.0236 (0.0234)	0.0165 (0.0184)	0.0602 (0.0432)	0.1299*** (0.0338)	-0.0562** (0.0276)	-0.0324 (0.0221)
고교 유형 (일반계=1, 전문계=0)		0.0300* (0.0156)		-0.0030 (0.0222)		0.0669*** (0.0220)
고3당시 사교육 경험 (있음=1, 없음=0)		0.0105 (0.0155)		0.0116 (0.0223)		0.0132 (0.0214)
고3 당시 가구소득		0.0001** (0.0000)		0.0001 (0.0001)		0.0001 (0.0001)
부친 교육연수		0.0100*** (0.0029)		0.0092** (0.0041)		0.0102** (0.0040)
현재 장래희망직업 (있음=1, 없음=0)	0.0146 (0.0119)	0.0290*** (0.0103)	0.0152 (0.0168)	0.0376*** (0.0145)	0.0100 (0.0170)	0.0159 (0.0145)
Constant	4.0003*** (0.0993)	3.8307*** (0.0981)	4.0375*** (0.1495)	4.0564*** (0.1461)	3.9041*** (0.1355)	3.7513*** (0.1333)
관찰 수	7,387		3,923		3,464	
R-squared	0.0342		0.0388		0.0328	

주 : ***-1%, **-5%, *-10% 유의수준에서 각각 유의함.

<표 11> 취업 준비가 패널 분석: 근무편의성 요인 (전체 표본 대상)

	전체		남성		여성	
	고정효과 모형	확률효과 모형	고정효과 모형	확률효과 모형	고정효과 모형	확률효과 모형
성 (남성=1, 여성=0)		-0.5613*** (0.0298)				
연령	0.0387*** (0.0066)	0.0390*** (0.0063)	0.0508*** (0.0098)	0.0529*** (0.0093)	0.0323*** (0.0090)	0.0287*** (0.0086)
전문대 재학	-0.1524 (0.1053)	0.0443 (0.0809)	-0.1771 (0.1334)	0.0043 (0.1053)	-0.1409 (0.1831)	0.1384 (0.1353)
전문대 졸업	-0.1079 (0.0749)	0.1045*** (0.0388)	-0.1714* (0.0919)	0.0616 (0.0535)	-0.0945 (0.1365)	0.1230** (0.0575)
4년제대 재학	-0.0728 (0.0956)	0.0984 (0.0731)	0.0421 (0.1212)	0.1720* (0.0972)	-0.3910** (0.1686)	-0.1190 (0.1165)
4년제대 졸업	-0.0082 (0.0706)	0.1493*** (0.0416)	0.0099 (0.0846)	0.1685*** (0.0559)	-0.1025 (0.1341)	0.0999 (0.0639)
취업 중	-0.0295 (0.0699)	-0.0179 (0.0612)	-0.0204 (0.0944)	-0.0457 (0.0830)	-0.0837 (0.1048)	-0.0007 (0.0914)
미취업 중	-0.0536 (0.0730)	-0.0220 (0.0642)	-0.0171 (0.0991)	-0.0172 (0.0876)	-0.1156 (0.1090)	-0.0280 (0.0955)
결혼 (배우자 있음=1, 배우자 없음=0)	0.0080 (0.0441)	-0.0042 (0.0365)	0.0679 (0.0792)	-0.0197 (0.0657)	-0.0031 (0.0540)	0.0194 (0.0451)
고교 유형 (일반계=1, 전문계=0)		0.0410 (0.0342)		-0.0056 (0.0480)		0.0892* (0.0491)
고3 당시 사교육경험 (있음=1, 없음=0)		0.0545 (0.0341)		0.0920* (0.0486)		0.0088 (0.0480)
고3 당시 가구소득		0.0002* (0.0001)		0.0003* (0.0001)		0.0001 (0.0001)
부친 교육연수		0.0184*** (0.0064)		0.0143 (0.0090)		0.0199** (0.0090)
현재 장래희망직업 (있음=1, 없음=0)	-0.0276 (0.0225)	-0.0415** (0.0201)	-0.0767** (0.0307)	-0.0733*** (0.0275)	0.0254 (0.0332)	-0.0081 (0.0293)
Constant	-0.9067*** (0.1875)	-1.1729*** (0.1933)	-1.4951*** (0.2740)	-2.0373*** (0.2807)	-0.3549 (0.2650)	-0.9061*** (0.2709)
관찰 수	7,387		3,923		3,464	
R-squared	0.0114		0.0175		0.0137	

주 : ***-1%, **-5%, *-10% 유의수준에서 각각 유의함.

취업 눈높이 15개 항목 요인분석을 통해 얻은 근무편의성 요인과 선망직장 요인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각 요인의 요인점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패널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표 11>의 근무편의성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요인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이 근무조건을 더욱 중시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연령이 올라갈수록 근무편의성 요인을 중시하였고, 학력별로는 고졸을 기준 집단으로 했을 때 확률효과 모형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근무편의성 요인을 중시하였다. 그러나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반대로 학력은 유의한 부(-)의 효과를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남성 표본과 여성 표본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근무편의성 요인 분석의 경우 Hausman 검정에서 확률효과 모형이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정효과 모형의 결과를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현재 상태별로는 유보임금과는 다르게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고교 관련 변수 중 고교 유형은 여성 표본에서만 유의한 정(+) 효과를 보였고 고3 당시 사교육 경험은 남성 표본에서 유의한 정(+)의 효과가 나타났다. 고3 당시 가구소득은 유보임금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효과의 크기는 작지만 소득이 높을수록 근무편의성 요인에 유의한 정(+)의 효과를 보였으며, 부친의 교육연수는 전체 표본과 여성 표본에서 유의한 정(+)의 효과를 보였다.

다음으로 <표 12>의 선망직장 요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성별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연령별로는 남성 표본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선망직장을 중시한 반면, 여성 표본에서는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앞의 분석 결과와 종합하면, 여성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임금과 근무편의성 요인을 중요시하나, 선망직장 요인은 변화가 없음을 의미한다. 학력별로는 고졸에 비해 4년제 대졸자가 선망직장을 더욱 중시하였고, 현재 상태별로는 재학 중에 비해 취업 중과 미취업 중인 경우 선망직장에 대한 중요도가 낮았다. 이를 앞의 분석 결과와 종합해보면 재학 중인 경우 유보임금과 선망직장 요인에 대한 선호도가 모두 취업 중과 미취업 중인 경우에 비해 높아 재학생의 전반적 취업 눈높이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선망직장 요인에 대한 중요도가 낮아져 결혼 이후에는 선망직장에 대한 눈높이는 낮아지고 유보임금이 높아져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에 더욱 관심이 높아진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고교 관련 변수에 대한 결과를 보면, 전체 표본과 여성 표본에서 일반계인 경우 전문계보다 선망직장 요인점수가 높았고, 고3 당시 사교육 경험도 전체 표본과 여성 표본에서 유의한 정(+)의 효과를 보였다. 가구소득이 선망직장 요인점수에 미치는 효과는

전체 표본과 남성 표본에서만 나타났고, 부친 교육연수에 대한 정(+)의 효과는 모든 표본에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장래희망이 있으면 선망직장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

〈표 12〉 취업 준비가 패널 분석: 선망직장 요인 (전체 표본 대상)

	전체		남성		여성	
	고정효과 모형	확률효과 모형	고정효과 모형	확률효과 모형	고정효과 모형	확률효과 모형
성 (남성=1, 여성=0)		-0.0126 (0.0289)				
연령	0.0116* (0.0067)	0.0117* (0.0063)	0.0399*** (0.0104)	0.0401*** (0.0098)	-0.0095 (0.0085)	-0.0111 (0.0081)
전문대 재학	0.0096 (0.1064)	-0.0665 (0.0807)	-0.0069 (0.1417)	-0.0230 (0.1089)	0.0052 (0.1725)	-0.1566 (0.1282)
전문대 졸업	0.0168 (0.0756)	0.0412 (0.0379)	-0.1112 (0.0976)	0.0226 (0.0537)	0.1533 (0.1286)	0.0472 (0.0550)
4년제대 재학	0.0049 (0.0966)	0.0257 (0.0728)	0.0716 (0.1288)	0.0532 (0.1004)	-0.0511 (0.1588)	0.0027 (0.1105)
4년제대 졸업	-0.0196 (0.0713)	0.0982** (0.0408)	0.0001 (0.0899)	0.0912 (0.0566)	-0.0847 (0.1263)	0.0821 (0.0610)
취업 중	-0.0081 (0.0706)	-0.1029* (0.0612)	-0.0339 (0.1003)	-0.1491* (0.0863)	0.0283 (0.0987)	-0.0543 (0.0866)
미취업 중	-0.0229 (0.0738)	-0.1284** (0.0642)	-0.0005 (0.1053)	-0.1230 (0.0912)	-0.0155 (0.1027)	-0.1108 (0.0904)
결혼 (배우자 있음=1, 배우자 없음=0)	-0.2317*** (0.0445)	-0.2083*** (0.0364)	-0.2186*** (0.0841)	-0.1801*** (0.0678)	-0.1907*** (0.0509)	-0.1815*** (0.0428)
고교 유형 (일반계=1, 전문계=0)		0.0861*** (0.0331)		0.0718 (0.0470)		0.1009** (0.0470)
고3 당시 사교육 경험 (있음=1, 없음=0)		0.0741** (0.0329)		0.0534 (0.0474)		0.0891* (0.0460)
고 3당시 가구소득		0.0002* (0.0001)		0.0003** (0.0001)		0.0000 (0.0001)
부친 교육연수		0.0300*** (0.0061)		0.0318*** (0.0088)		0.0263*** (0.0087)
현재 장래희망직업 (있음=1, 없음=0)	0.0699*** (0.0228)	0.1051*** (0.0201)	0.0109 (0.0326)	0.0548* (0.0287)	0.1352*** (0.0313)	0.1604*** (0.0278)
Constant	-0.3019 (0.1894)	-0.9028*** (0.1928)	-0.9888*** (0.2910)	-1.6580*** (0.2910)	0.1705 (0.2496)	-0.2913 (0.2569)
관찰 수	7,387		3,923		3,464	
R-squared	0.0068		0.0069		0.0217	

주 : ***-1%, **-5%, *-10% 유의수준에서 각각 유의함.

나, 진로탐색에 적극적일 경우 유보임금과 선망직장 요인에 특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2. 취업자 대상 분석

개인의 취업 눈높이에 따라 취업준비 정도, 구인 제의에 대한 수락 여부 등이 달라질 것이고, 현재 종사하는 일자리의 특성이 개인의 취업 눈높이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취업상태는 취업 눈높이와 일정한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취업자 대상 분석에서는 독립변수 중 기존의 현재 상태별 변수는 제외하고 종사상지위, 기업체 규모, 로그시간당 임금 등을 추가하여 현재 일자리의 특성과 취업 눈높이 간의 상관관계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먼저 <표 13>의 유보임금 분석 결과를 보면, 전체 표본 대상 분석과 동일하게 종속변수는 로그 유보임금이고 취업자 전체 표본 이외에도 남성과 여성 표본을 분리한 분석의 결과이다. 개별 변수의 효과를 보면, 남성일 경우 여성보다 유보임금이 높았고 연령과 학력에 대한 정(+)의 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결혼 여부는 남성 표본에서만 유의한 정(+)의 효과가 나타나므로 취업자로 표본을 한정해도 전체 표본 추정 결과와 동일하다. 장래희망 변수는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이는 취업 이후에는 진로 활동이 유보임금에 큰 영향이 없음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종사상지위 변수는 여성 표본의 경우에만 유의한 효과가 있으며, 상용직일 때 임시·일용직보다 유보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체 종사자 300인을 기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나누었을 때, 대기업인 경우 중소기업보다 유보임금이 높았으며, 유보임금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현 직장에서의 로그시간당 임금도 유의한 효과를 미쳐 현재 임금이 유보임금 결정에 커다란 영향력이 있음을 나타냈다.

<표 14>의 취업자 표본의 근무편의성 요인 분석에는 전체 표본과 비슷하게 여성의 요인점수가 남성보다 높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근무편의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리고 학력에 대한 효과도 전체 표본과 유사하게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부(-)의 효과가, 확률효과에서는 정(+)의 효과가 나타났다. 고교 변수 중 고교 유형은 여성 표본에서만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고 사교육 효과는 남성 표본에서만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 전체 표본과 유사했다. 가구소득도 효과의 크기는 작지만 정(+)의 효과가 나타났고 부친 교육연수가 높을수록 근무편의성에 대한 눈높이가 높았고 장래희망직업에 대한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13> 유보임금 패널 분석 (취업자 대상)

	전체		남성		여성	
	고정효과 모형	확률효과 모형	고정효과 모형	확률효과 모형	고정효과 모형	확률효과 모형
성 (남성=1, 여성=0)		0.1596*** (0.0157)				
연령	0.0391*** (0.0047)	0.0300*** (0.0040)	0.0448*** (0.0073)	0.0337*** (0.0063)	0.0371*** (0.0061)	0.0286*** (0.0053)
전문대 재학	-0.0160 (0.0539)	-0.0250 (0.0353)	-0.0389 (0.0658)	-0.0244 (0.0446)	0.0109 (0.0962)	-0.0323 (0.0614)
전문대 졸업	0.0571 (0.0502)	0.0352* (0.0208)	-0.0289 (0.0632)	0.0044 (0.0308)	0.1834** (0.0855)	0.0560** (0.0268)
4년제대 재학	0.0869* (0.0492)	0.1076*** (0.0284)	0.0917 (0.0620)	0.1070*** (0.0382)	0.1268 (0.0843)	0.1181*** (0.0428)
4년제대 졸업	0.0632 (0.0514)	0.0812*** (0.0230)	0.0598 (0.0670)	0.0962*** (0.0339)	0.1120 (0.0842)	0.0702** (0.0300)
결혼 (배우자 있음=1, 배우자 없음=0)	0.0021 (0.0291)	0.0271 (0.0223)	0.0865* (0.0489)	0.1250*** (0.0368)	-0.0393 (0.0362)	-0.0396 (0.0274)
고교 유형 (일반계=1, 전문계=0)		0.0080 (0.0182)		-0.0403 (0.0290)		0.0525** (0.0212)
고3 당시 사교육 경험 (있음=1, 없음=0)		0.0055 (0.0178)		0.0027 (0.0287)		0.0114 (0.0207)
고3 당시 가구소득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부친 교육연수		0.0055 (0.0035)		0.0073 (0.0057)		0.0029 (0.0040)
현재 장래희망직업 (있음=1, 없음=0)	0.0064 (0.0152)	0.0128 (0.0123)	0.0218 (0.0223)	0.0282 (0.0183)	-0.0100 (0.0208)	-0.0015 (0.0162)
종사상지위 (상용직=1, 임시직/일용직=0)	-0.0112 (0.0217)	0.0143 (0.0174)	-0.0444 (0.0317)	-0.0144 (0.0257)	0.0202 (0.0301)	0.0423* (0.0234)
기업체 규모 (대기업=1, 중소기업=0)	0.0198 (0.0198)	0.0731*** (0.0139)	0.0249 (0.0274)	0.0720*** (0.0202)	0.0105 (0.0286)	0.0807*** (0.0185)
로그시간당 임금	0.0950*** (0.0209)	0.1392*** (0.0161)	0.1128*** (0.0289)	0.1212*** (0.0230)	0.0668** (0.0303)	0.1651*** (0.0220)
Constant	3.2431*** (0.1803)	2.8260*** (0.1528)	3.0569*** (0.2595)	3.0637*** (0.2305)	3.3913*** (0.2564)	2.6258*** (0.2045)
관찰 수	4,267		2,004		2,263	
R-squared	0.0591		0.0810		0.0517	

주 : ***-1%, **-5%, *-10% 유의수준에서 각각 유의함.

〈표 14〉 취업 눈높이 패널 분석: 근무편의성 요인 (취업자 대상)

	전체		남성		여성	
	고정효과 모형	확률효과 모형	고정효과 모형	확률효과 모형	고정효과 모형	확률효과 모형
성 (남성=1, 여성=0)		-0.5805*** (0.0350)				
연령	0.0382*** (0.0099)	0.0359*** (0.0087)	0.0464*** (0.0158)	0.0476*** (0.0137)	0.0378*** (0.0127)	0.0282** (0.0113)
전문대 재학	-0.1257 (0.1143)	0.1086 (0.0769)	-0.2487* (0.1427)	0.1186 (0.0960)	0.0104 (0.1999)	0.1238 (0.1362)
전문대 졸업	-0.1828* (0.1066)	0.1099** (0.0462)	-0.3638*** (0.1370)	0.1047 (0.0639)	-0.0712 (0.1777)	0.0841 (0.0682)
4년제대 재학	-0.0966 (0.1044)	0.1130* (0.0621)	0.1471 (0.1344)	0.2891*** (0.0815)	-0.3809** (0.1751)	-0.1613 (0.0989)
4년제대 졸업	-0.0748 (0.1091)	0.1665*** (0.0509)	0.0404 (0.1453)	0.2502*** (0.0707)	-0.1935 (0.1749)	0.0623 (0.0755)
결혼 (배우자 있음=1, 배우자 없음=0)	-0.0230 (0.0617)	-0.0438 (0.0486)	0.0587 (0.1061)	-0.0610 (0.0786)	-0.0606 (0.0752)	-0.0194 (0.0614)
고교 유형 (일반계=1, 전문계=0)		0.0522 (0.0405)		-0.0171 (0.0594)		0.1261** (0.0557)
고3 당시 사교육경험 (있음=1, 없음=0)		0.0653* (0.0397)		0.1147* (0.0586)		0.0185 (0.0544)
고3 당시 가구소득		0.0002* (0.0001)		0.0002 (0.0002)		0.0002* (0.0001)
부친 교육연수		0.0162** (0.0077)		0.0141 (0.0116)		0.0154 (0.0104)
현재 장래희망직업 (있음=1, 없음=0)	0.0365 (0.0323)	-0.0063 (0.0268)	-0.0132 (0.0484)	-0.0236 (0.0397)	0.0691 (0.0433)	0.0066 (0.0362)
종사상 지위 (상용직=1, 임시직/일용직=0)	0.0421 (0.0461)	0.0569 (0.0379)	0.0579 (0.0687)	0.0316 (0.0558)	0.0440 (0.0626)	0.0942* (0.0520)
기업체 규모 (대기업=1, 중소기업=0)	-0.0390 (0.0420)	-0.0304 (0.0305)	-0.0981* (0.0594)	-0.0880** (0.0433)	0.0116 (0.0595)	0.0266 (0.0432)
로그시간당 임금	0.2012*** (0.0443)	0.1846*** (0.0350)	0.2626*** (0.0626)	0.2195*** (0.0497)	0.1279** (0.0630)	0.1579*** (0.0499)
Constant	-2.7063*** (0.3827)	-2.8062*** (0.3328)	-3.7895*** (0.5628)	-3.9747*** (0.4994)	-1.7405*** (0.5327)	-2.3523*** (0.4554)
관찰 수	4,267		2,004		2,263	
R-squared	0.0253		0.0464		0.0232	

주 : ***-1%, **-5%, *-10% 유의수준에서 각각 유의함.

<표 15> 취업 준비가 패널 분석: 선망직장 요인 (취업자 대상)

	전체		남성		여성	
	고정효과 모형	확률효과 모형	고정효과 모형	확률효과 모형	고정효과 모형	확률효과 모형
성 (남성=1, 여성=0)		-0.0613* (0.0330)				
연령	0.0050 (0.0096)	-0.0053 (0.0084)	0.0274* (0.0154)	0.0133 (0.0132)	-0.0064 (0.0124)	-0.0168 (0.0110)
전문대 재학	-0.0218 (0.1111)	-0.0133 (0.0741)	-0.0041 (0.1389)	0.0902 (0.0916)	-0.1198 (0.1949)	-0.1898 (0.1327)
전문대 졸업	0.0946 (0.1036)	0.0648 (0.0437)	-0.0318 (0.1334)	0.0752 (0.0588)	0.2222 (0.1732)	0.0424 (0.0668)
4년제대 재학	0.0820 (0.1015)	0.1659*** (0.0596)	0.1469 (0.1308)	0.2177*** (0.0771)	0.0579 (0.1706)	0.0924 (0.0966)
4년제대 졸업	-0.0226 (0.1060)	0.1143** (0.0483)	-0.0141 (0.1414)	0.1407** (0.0655)	-0.0023 (0.1705)	0.0721 (0.0739)
결혼 (배우자 있음=1, 배우자 없음=0)	-0.2063*** (0.0599)	-0.1920*** (0.0467)	-0.2054** (0.1032)	-0.1806** (0.0744)	-0.1959*** (0.0733)	-0.1928*** (0.0599)
고교 유형 (일반계=1, 전문계=0)		0.0671* (0.0382)		0.0705 (0.0541)		0.0690 (0.0546)
고3 당시 사교육경험 (있음=1, 없음=0)		0.0866** (0.0374)		0.0727 (0.0532)		0.0922* (0.0534)
고3 당시 가구소득		0.0000 (0.0001)		0.0001 (0.0002)		-0.0001 (0.0001)
부친 교육연수		0.0349*** (0.0073)		0.0395*** (0.0106)		0.0300*** (0.0102)
현재 장래희망직업 (있음=1, 없음=0)	0.0621** (0.0314)	0.1102*** (0.0258)	0.0123 (0.0471)	0.0841** (0.0380)	0.1013** (0.0422)	0.1305*** (0.0353)
종사상 지위 (상용직=1, 임시직/일용직=0)	-0.0622 (0.0448)	-0.0139 (0.0366)	-0.0811 (0.0668)	-0.0515 (0.0535)	-0.0465 (0.0610)	0.0129 (0.0507)
기업체 규모 (대기업=1, 중소기업=0)	-0.0150 (0.0408)	0.1428*** (0.0292)	-0.0629 (0.0578)	0.1654*** (0.0410)	0.0285 (0.0580)	0.1214*** (0.0422)
로그시간당 임금	0.0610 (0.0431)	0.2087*** (0.0337)	0.0704 (0.0610)	0.2378*** (0.0475)	0.0469 (0.0614)	0.1773*** (0.0486)
Constant	-0.6976* (0.3718)	-2.5316*** (0.3210)	-1.3295** (0.5477)	-3.4252*** (0.4796)	-0.3311 (0.5191)	-1.8522*** (0.4439)
관찰 수	4,267		2,004		2,263	
R-squared	0.0085		0.0105		0.0152	

주 - *** 1%유의수준, ** 5% 유의수준에서 * 10% 유의수준에서 각각 유의함.

취업 관련 변수의 효과를 살펴보면, 상용직일수록 근무편의성에 대한 요인점수가 높았고 직장 규모는 남성 표본에서 부(-)의 효과가 나타나 대기업 종사자는 근무편의성을 중시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었다. 로그시간당 임금은 유보임금과 마찬가지로 근무편의성에도 유의한 정(+)의 효과를 가져 현재 임금이 높을수록 근무환경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표 15>에 나타난 취업자 표본의 선망직장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보다 여성의 선망직장 요인점수가 높았다. 연령별로는 유의한 효과가 존재하지 않았고, 학력별로는 전체 표본과 남성 표본에서 고졸보다 4년제 대학 재학, 4년제 대학 졸업이 선망직장을 더 중시하였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구직자는 배우자가 없는 구직자보다 선망직장을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관련 변수에서는 전문계보다 일반계일 경우, 그리고 사교육 경험이 없을 때보다 있을 경우에 선망직장 요인점수가 더 높았다. 가구소득은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부친의 교육연수의 효과는 유보임금, 근무편의성 요인보다 선망직장 요인 분석에서 효과가 더 컸다.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대기업일 경우 중소기업보다 선망직장을 중요시하였다.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논문에서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7~11차년도(2010~2014년)의 원자료를 패널화하여 취업 눈높이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취업 눈높이 지표는 유보임금과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근무편의성 요인, 선망직장 요인으로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 눈높이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유보임금은 2010~2013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상승했지만 2014년도에는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0년에 비해 2014년에 선호도가 높아진 항목은 주5일 근무(19.37%p), 통근 가능권(9.91%p), 근무시간(9.63%p), 사무직(7.55%p) 등으로 특히 근무 편의성과 관련된 항목의 선호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2010년에 비하여 선호도가 낮아진 항목은 수도권 직장(3.57%p), 도시권 직장(1.67%p) 등인데, 공기업의 지방 이전,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 등이 지방 근무에 대한

청년층의 거부감을 완화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둘째, 유보임금에 대한 패널분석 결과 남성, 연령, 그리고 학력은 유의한 정(+)의 효과를 보였다. 결혼 여부는 남성 표본에서만 정(+)의 효과가 나타났으며, 연령효과 역시 여성보다 남성에서 더 크게 나타나 남성이 느끼는 가족부양에 대한 경제적 책임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되었다. 현재 상태별로는 재학 중인 경우에 취업 중, 미취업 중인 경우보다 유보임금이 더 높았다.

셋째, 근무편의성 요인에 대한 패널 분석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근무편의성 요인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이 가사, 육아 등에 대한 부담감이 높고 일과 가사를 병행할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통근 가능성 등 시간에 민감한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선망직장 요인에 대한 패널 분석 결과 성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고, 남성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선망직장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강해지지만 여성의 연령에 대한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현재 상태별 변수에서는 재학 중에 비해 취업 중과 미취업 중이 선망직장에 대한 중요도가 낮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로, 유보임금은 여성에 비해 남성이 높은 특징을 보였으나, 임금 이외의 취업 준비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여성은 근무시간, 통근 가능성, 주5일제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 준비를 보인 반면, 남성은 정규직, 높은 임금 등을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연령이 높아지면서 남성의 이러한 성향이 더욱 강화됨을 감안할 때 취업을 중심의 질 낮은 일자리 양산을 통해서도 남성 청년층의 취업난 해소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여성은 고임금보다는 근무시간, 통근 가능성, 주5일제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만큼 청년층 고용대책을 수립할 때, 성별 취업 준비 차이를 감안한 세심한 정책 추진이 필요해 보인다. 앞으로 예상되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현실적인 여성인력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특히 저출산에 대처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간제 정규직, 유연근무제, 스마트워킹 등 직업과 가사의 병행이 가능한 일자리, 근무형태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일한 연령 코호트임에도 불구하고 유보임금은 4년제 대학 재학 중인 집단이 졸업자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 취업 준비와 재학 기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드러냈다. 분석대상 코호트의 평균연령이 27.8세인 점을 감안하면, 분석 시점 현재 4년제 대학 재

학생은 분석 대상 중에서도 대학에 오래 재학한 집단에 해당한다. 이것은 취업 기대치가 높은 대학생 집단이 취업 스펙 준비를 위해 대학에 더 오래 재학하고, 이것이 재학생의 높은 취업 눈높이로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와 더불어 대학 재학생 일수록 유보임금이 높고, 취업 중, 미취업 중의 순으로 낮다는 사실은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나 경험이 제한적인 청년층일수록 과도한 취업 눈높이를 갖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진로교육을 통해 청년층이 노동시장의 생생한 현실을 깊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관련 진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청년층이 중시하는 근로조건은 근무시간, 통근 가능권, 정규직, 주5일제 등이며, 중소기업 기피나 대기업 선호 등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기피 현상이 대기업에 대한 막연한 선호나 사회적 인정 욕구에 기인한다기보다는 청년층이 희망하는 합리적 인사관리, 근로조건 등이 중소기업에서는 충족되지 못하리라는 우려감 때문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관행을 확립하고 근무시간 등이 철저히 준수되는 근로문화 정착이 중요한 과제임을 의미한다.

그간 청년층 취업난 해소를 위해 임시적 일자리 창출 등 노동수요 중심의 정책 대응이 있었으나, 인력양성 등 노동공급 측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미진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년층의 취업 눈높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다양한 분석을 통해 정책 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대책 마련에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 류재술·류기철. 「실업근로자의 성별 의중임금함수 추정」. 『노동경제논집』 25권 2호 (2002. 6): 109-128.
- 민인식. 「KEEP 데이터를 활용한 패널 실증분석」. 『제10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패널특강』, (2015. 2): 1-49.
- 오호영·송창용·송경모. 『청년층의 취업 눈높이 실태파악을 통한 진로정책 과제』.

-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2.
- 이병희·윤윤규·김주영·정성미. 『청년 비취업자의 눈높이 조정과정에 대한 연구』.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2009.
- 이성림. 「미취업 여성의 미취업 원인에 관한 연구: 의중임금과 시장임금의 비교를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27권 1호 (2004. 4): 135-164.
- 어수봉. 『한국의 실업구조와 신인력정책』.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1994.
- Carrillo-Tudela, C. “An Equilibrium Search Model when Firms Observe Workers’ Employment Statu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50 (2) (April 2009): 485-506.
- Hogan, V. “Wage Aspirations and Unemployment Persistence.”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51 (8) (November 2004): 1623 - 1643.
- Jones, S.R.G. “Reservation Wages and the Cost of Unemployment.” *Economica New Series* 56 (222) (May 1989): 225 - 246.
- Mortensen, Dale. “Job Search and Labor Market Analysis.” In *Handbook of Labor Economics*. Vol. 2, edited by Orley C. Ashenfelter and Richard Layard, pp. 849-919. Amsterdam: Elsevier Science Publishers, 1986.
- Prasad, E.S. *What Determines the Reservation Wages of Unemployed Workers? New Evidence on German Micro Data*. (IZA discussion paper No. 694). Bonn, Germany: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r (IZA), 2003.

abstract

The Panel Analysis of Youth Employment Expectation

Hye Jin Kim, Ho Young Oh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change of employment expectation using the wave 7-11 (2010-2014) of Korea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KEEP). The three main variables are the reservation wage, which has been studied by labor economists for a long time, the convenient working environment factor, the desired job factor. Last two of which are extracted from the 15 survey questions about employment expectation using the factor analysis. Our estimates suggest that male have a higher reservation wage than female while female have a higher level of expectation overall. Women attach more importance to working environment especially. Also, university students have a higher reservation wage and set a higher value on the desired job than employees and job seekers.

Key words: employment expectation, reservation wage, factor analysis